



## 쌍 뺨에르(성 베드로) 대성당

### 개혁교회

12세기에 건축된 쌍 뺨에르(Saint-Pierre,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16세기 초 제네바의 종교개혁(Réforme)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네바의 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은 1564년 5월 27일 그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설교하였습니다. 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프랑스어로 드리며 오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개혁교회의 여섯 가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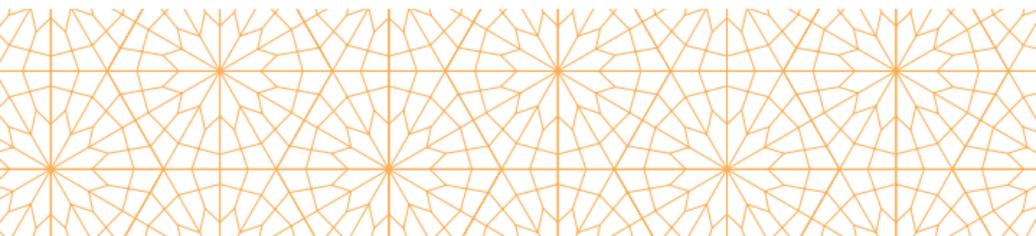
**“솔리 데오 글로리아/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17)의 이 구절은 개신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신조입니다a. 예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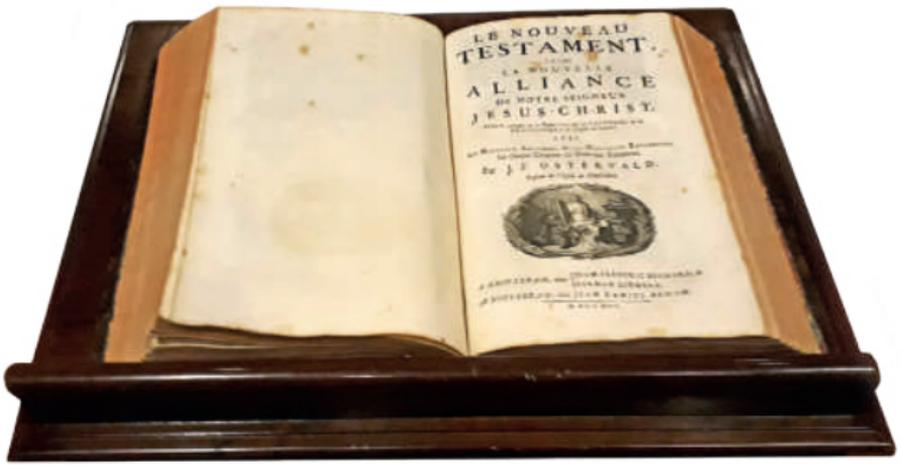
**“솔루스 크리스투스/오직 그리스도”** 종교개혁(Réforme)은 예수님의 메시지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빌립보서 2:11). 사회나 교회의 지위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들의 어떤 사회적 조건,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제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개신교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 교리 그리고 경건의 반석입니다. 16세기에 개혁자들은 그들이 정하고 사용했던 대중적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술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대중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과 설교는 개신교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오직 은혜”** 16세기에, 로마 바실리크(basilique, 바실리카식) 건축의 쌍 뵘에르(Saint-Pierre, 성 베드로) 대성당이 시작된 이래,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살 수 있는 “면죄부(indulgences)”를 팔았습니다.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관행을 반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은혜를 주시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솔라 피데/오직 믿음”** “선행”과 돈으로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는 유혹 앞에서, 개혁자들은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8).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셴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세꾼똥 베르똥 데이/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에게,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도록 부름을 받은 기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인정받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 개신교의 윤리

**개혁교회**는 언제나 윤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공로에 대한 윤리를 무시합니다.** 개신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표시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없이 완전히 거저(아무런 노력이나 대가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율법과 관련지어 생각되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인간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사항은 이미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는 그들이 자신에게 행하여지기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정의와 공평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십니다 : 자신에게 행하여지기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도 행하십시오.

**칼뱅(Calvin)은 예를 들어 그것을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곧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Réforme)은 책임감에 관한 윤리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48)라는 것을 알고 그 자신의 삶에서 들려오는 부르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수많은 정치적, 법적 및 경제적인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랑의 첫 번째 구체적 형태가 정의라고 이해하였던 유엔(ONU)에서부터 적십자(Croix-Rouge) 국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제네바의 많은 국제기관의 존재를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신교들인에 관한 몇 가지 문구들

**“개신교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예배가 신약성경에 없는 것을 볼 때, 개신교인들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매우 주요 인물로서 존경합니다.

**“개신교인들은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형제 중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를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관리하는 권위자들을 변함없이 인정합니다.** 목사들은 대학에서 양성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예배와 봉사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 최초의 여성 목사는 1943년에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제네바 목사회와 집사회는 남성만큼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엄격합니다.”** 개신교의 경건은 금식이나 고행의 관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신교인들은 건전한 절제를 이행하며 검소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자본주의의 출현을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책임감과 (행하는, 믿는 그리고 책임지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개신교 정신과 사회 정의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과의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원칙들이라면, 그것들은 윤리에 대한 기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습니다.

**2020년,** 세계에 기독교인들은 대략 20억 명의 달합니다. 그중 8억 명은 수많은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칼빈주의자, 루터교, 장로교, 복음주의자 ...).

**쌍 삐에르(Saint-Pierre, 성 베드로) 대성당**은 세계 개신교의 요람 중 하나입니다.

# 대성당, 자발적으로 장식을 없앤 교회

카톨릭 대성당들과 교회들 안의 매우 값비싼 **장식품들에 대해 반대하면서**, 개신교인들이 그들의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검소함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에 뿌리를 둔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출애굽기 20:4-5).

**종교개혁(Réforme) 당시**, 제네바인들은 대성당에서 일부 성상을 파괴하였으며, 그 벽들을 장식한 성화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콘라드 비츠(Konrad Witz)의 의해 1444년에 칠해진 제단 뒤의 벽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네바의 예술 & 역사 박물관(Musée d'Art et d'Histoire)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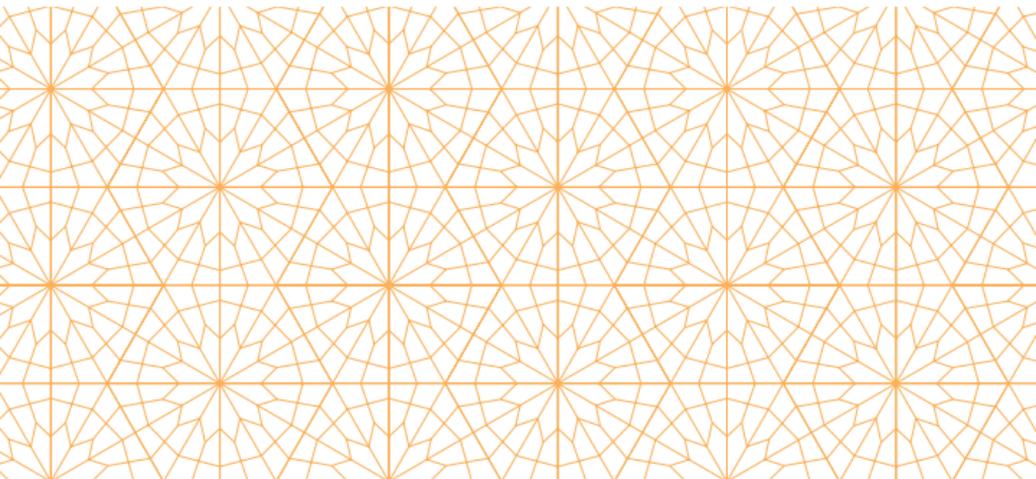
**내진(Choir, 성직자와 수도사가 전용하는 성당 내의 안쪽 부분)에서 성직자가 위치한 자리는 더 이상 성직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장소에 대해 존중하며 출입할 수 있습니다.

**설교 강단은** 예배 또는 설교 중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성수반(성수를 담아 놓은 곳)도 고해실도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수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물이나 물건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은 목사의 중보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기 때문입니다.



콘라드 비츠(Konrad Witz)의 고기잡이 기적, 제네바의 예술 & 역사 박물관



#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1517년 10월 31일** 루터(Luther, 1483-1546)는 영혼의 구원을 돈으로 파는 그 시대의 교회 관행을 반대합니다. 그는 종교개혁(Réforme)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면죄부에 반대하여 95개 조의 논제를 게재합니다. “돈이 그들의 연보궈에 딸랑하고 울리면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비약한다. 확실한 것은 돈이 연보궈에 딸랑하고 울리면 곧 욕심과 탐욕도 증가한다”(논제 27-28).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의회(Diète de Worms)에서 교황은 95개 조의 논제를 철회할 것을 명령하였고, 루터(Luther)는 다음과 같이 거부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유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 그들이 종종 잘못 생각했고, 모순되는 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나는 교황(Pape)의 무오성도, 교황청의 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들도 믿지 않는다. - 그것들은 내가 인용했던 성경의 본문들에 연결되어 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 잡혀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하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다.”

**1532년-1536년**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은 제네바의 종교개혁(Réforme)을 설교합니다. 시의회가 카톨릭 미사를 중단합니다. 이후, 파렐(Farel)은 프랑스인 장 깔방(Jean Calvin, 1509-1564)에게 제네바의 종교개혁(Réforme)을 호소합니다.

**1536년 5월 21일** 제네바 시민들은 종교개혁(Réforme)을 채택합니다. 도망친 주교과 사브와(Savoie, 사보이)의 공작으로부터 해방된 제네바는 공화국이 됩니다.

**1536년-1559년** 깔방(Calvin)은 교회법을 작성한 다음에 새 공화국의 헌법 대신 시민법(Edits Civils)을 제정합니다. 제네바는 “개신교의 로마(Rome protestante)”가 됩니다.



깔방의 학교



장 칼뱅의 전신상  
(종교개혁 기념비)

**1559년** 칼뱅(Calvin)은 현재 대학(Université de Genève)으로 남아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이 곳은 16 세기에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신학교로 간주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상위 30위 대학교들 중 하나입니다.

**1572년 8월 24일** 파리에서 쌍 바르텔레미(Saint Barthélémy, 성 바돌로매)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개신교도가 프랑스를 떠나 제네바로 이주합니다. 이미 국제 상거래의 장소인 제네바는 망명자와 이민자의 땅이 됩니다.

**1598년 4월 30일** 카톨릭교로 개종한 개신교도 프랑스 국왕 앙리4세(Henri IV, 앙리)는 예배를 드리는 권리와 시민권을 개신교인들에게 부여하는 낭뜨 칙령(Edit de Nantes, 낭뜨 칙령)에 서명합니다. 이 칙령이 프랑스에서 종교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낭뜨 칙령(Edit de Nantes, 낭뜨 칙령)은 1685년 루이 14세(Louis XIV)에 의해 폐지됩니다. 그래서 1787년 관용 칙령 이후, 개신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양심의 자유가 마침내 인정되어진 시민의 권리(1789)과 인간의 권리 선언을 그들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1907년 6월 30일** 제네바인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 이후로 국가는 비종교적(laïque, 종교분리)이며 다원화적인 도시 내에서 행해지는 예배들에 대해 존중을 보장합니다.

**오늘날**, 쌍 삐에르(Saint-Pierre, 성 베드로) 대성당은 제네바 개신교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쌍 삐에르(Saint-Pierre, 성 베드로)의 끌레 재단(Fondation des Clefs)에 의해 유지됩니다. 쌍 삐에르(Saint-Pierre, 성 베드로) 개신교 교구는 영적 공동체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날 대성당은 에큐메니칼(œcuménique, 교회일치), 종교 간 및 콘서트 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5년마다, 제네바주와 공화국의 선출된 사람들이 여기서 선서를 합니다.

# 기도

“주 하나님, 당신의 태양을 땅에 비춰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당신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 제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소서.

과거에 행한 제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듯이,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저를 용서주소서.

언제나 영원히 밤낮으로 빛나며, 우리의 삶에 진실한 태양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날마다 당신의 은혜를 제게 부여주소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당신이 제게 정한 목표를 향해 언제나 더 멀리 보겠습니다”.

장 갈방 (Jean Calvin)



Paroisse protestante de Saint-Pierre  
Place Bourg-de-Four 24 - 1204 Genève  
+41 22 319 71 90

[www.saintpierre-geneve.ch](http://www.saintpierre-geneve.ch)  
[paroisse@saintpierre-geneve.ch](mailto:paroisse@saintpierre-geneve.ch)  
Page facebook: Paroisse de Saint-Pierre

CCP 12-1404-2  
IBAN CH18 0900 0000 1200 1404 2  
BIC POFICHBEXXX



ÉGLISE  
PROTESTANTE  
DE GENÈVE



CATHÉDRALE SAINT-PIERRE  
Place du Bourg-de-Four 24 | CH-1204 Genève  
[paroisse@saintpierre-geneve.ch](mailto:paroisse@saintpierre-geneve.ch)